

침체된 제주경제 완만한 회복세 탈까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 실물경제 동향’ 발표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던 관광객 줄고 소비심리 악화
추석부터 이어지는 연휴·전국체육대회는 긍정 요인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8월 다섯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9월 들어 다시 감소폭이 확대되는 데다 도민 소비심리 악화로 제주 실물경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여전하고 유류할증료 반등에 따른 관광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서인데, 9~10월 연휴와 전국체육대회 개최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9월 들어서는 8일까지 28만4000명의 관광객이 왔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2만7000명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허위 정보가 퍼진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월 취업자 수는 4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1만2000명) 증가했다. 농업·어업 취업자는 5만3000명으로 8.0% 증가했고, 제조업은 1만6000명으로 15.5% 늘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31.5% 증가한 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4000명으로 6.8% 감소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도 5.2%

제주항공, 김포~제주 노선 점유율 1위
지난 1~8월 총 197만명 수송… 점유율 20.7% 최고
슬롯 4개 재배분받은 후 4월부터 줄곧 수송객 1위

제주항공이 올해 김포-제주 노선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항공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 까지 김포-제주 노선의 전체 수송객 수는 958만1651명, 운항 편수는 5만2078편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제주항공의 수송객 수는 197만9360명으로 20.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운항 편수는 1만1017편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김포-제주 노선 이용객 5명 중 1명이 제주항공을 이용한 셈으로, 노선을 운항하는 9개 국적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1월 두 대형 항공사의 기업결합으로 재배분받은 김포-제주 노선의 4개 슬롯을 적극 활용했다.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3월 29일부터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기존 하루 왕복 22회에서 최대 26회로 늘려 하루 평균 약 1500석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했다.

공급석 확대는 수송객 수 증가로 이어졌다. 제주항공은 지난 4월 처음으로 김포-제주 노선 월간 수송객 1위를 기록한 이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

또 공급석 확대에도 1~8월 제주항공의 김포-제주 노선 탑승률은 93.7%로, 지난해 같은 기간(91.7%)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제주항공은 안정적인 수송 실적과 높은 탑승률을 바탕으로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월간 수송객 10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8월에는 120만명을 넘어서며 올해 월간 최대 수송객 수를 달성했다. 올해 1~8월 누적 탑승객 수는 898만명이다.

멕시코 기업 인센티브단 제주 매력 만끽
186명 사흘 동안 돌문화공원 등 자연·문화 체험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 인센티브 투어단이 제주를 찾아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를 체험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멕시코 대표 글로벌 시멘트 기업인 코르포라시온 모кте주마(Corporacion Moctezuma) 임직원 186명으로 구성된 인센티브 투어단이 제주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멕시코 최대 시멘트 제조 기업 중 하나인 코르포라시온 모кте주마 임직원들은 제주 방문 기간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스파에 투숙하며 성산일출봉, 주상절리 등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지를 둘러봤다. 또 ▷제주 해녀와 함께하는 산책 프로그램 ▷서귀포 치유의 숲 거닐기 ▷싱글볼 명상 등 제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진

제주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환영만찬은 도내 유니크베뉴(Unique Venue, MICE 행사 개최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의 장소) 중 하나인 제주돌문화공원에서 개최됐다.

인센티브 투어단은 제주의 돌 문



화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공간에서 제주 신화와 석조 문화의 정수를 느끼고, DJ 음악 공연과 함께 특별한 제주의 밤을 즐겼다.

한편 이번 멕시코 인센티브단 유치는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제주 필수농자재 지원 내년부터 시행되나
도, 지원 TF 가동… 세부 지원 기준 마련 착수

내년부터 제주경제의 근간인 1차산업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정에 따라 ‘필수농자재 지원TF’를 구성하고 가격 조사 대상 품목과 조사방법 및 지원한도 등 품목별 세부기준 마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TF는 행정과 농업, 농업인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세부 지원기준 등이 마련되면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 상정, 2027년 사업지침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필수농자재지원 조례’는 주민 발의로 논란 끝에 지난 3월 제447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필수 농자재를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정의하고 종자와 비료, 퇴비, 농업용유류, 비닐,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경우 제주자치도가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조례를 발의한 농민단체 측은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 적전 3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인상 폭이 5~10% 이하인 경우 경작 면적이 2ha 미만 농가에 20만원, 2ha 이상 농가에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상 폭이 10%를 초과할 경우 2ha 미만 농가와 2ha 이상 농가에 각각 50만원, 100만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는 2023년 충남 공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30개 도·시·군·구에서도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애월포레스트 불허해야”
도농어촌민박업협회 성명

제주도농어촌민박업협회는 9일 숙박시설 공급 과잉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한화가 추진하는 애월포레

스트 개발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제주도에 렌터카 총량제에 준하는 ‘숙박 객실 수 총량제’ 도입을 촉구했다.

제주도농어촌민박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숙박시설 공급 과잉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중산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애월포레스트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도내 전체 숙박 객실은 약 7만9000실에 달하지만 하루 평균 객실 수요는 3만4000여 실로, 하루 4만5000여 실의 객실이 남아돌

그랜드보청기

한가위 고객감사 대축제 물가안정 이벤트

1 50%특별할인 2 15만원 상당 UV전자 습기제거제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진형 귀속형 보청기

충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살충제를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점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세라메빌

그랜드보청기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한라봉 2년 -카라 2년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교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굴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정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콘도로번)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감굴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굴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굴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례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